

시민들과 함께하는 단풍문화축제 인기

11월 1~3일, 백양사에서 3년만에 보살계 수계법회 겸해 열려

붉은 빛 애기단풍이 물든 가을에 불자들과 시민들을 위한 문화잔치가 펼쳐졌다. 고불총림 장성 백양사(주지 진우)는 11월 1~3일 백양사 경내에서 단풍축제 및 보살계 수계법회를 병행했다.

행사는 1일 오전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3년 만에 마련된 백양사 보살계 수계산림 대회로 시작했다. 백양사 본·말사신도 1000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는 조계종 중앙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방장으로 추대된 지선 스님이 전계사로 법문했다. 지선 스님은 법어에서 "보살의 계율은 삶을 구속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를 자유롭게 하는 도구"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여한 신도들은 대승보살의 실천 덕목인 48경계를 수지했다. 보살계 수계법회 이후 행사는 신도들이 참여하는 전통문화공연 '우리가락, 힐링이 되다'로 이어졌다. 국악인 오정혜 씨의 사회로 창작국악그룹 도드리, 불교성악가 유현주, 승무 김주연, 전통문화연구소 회원들의 강강수월레가 차례로 무대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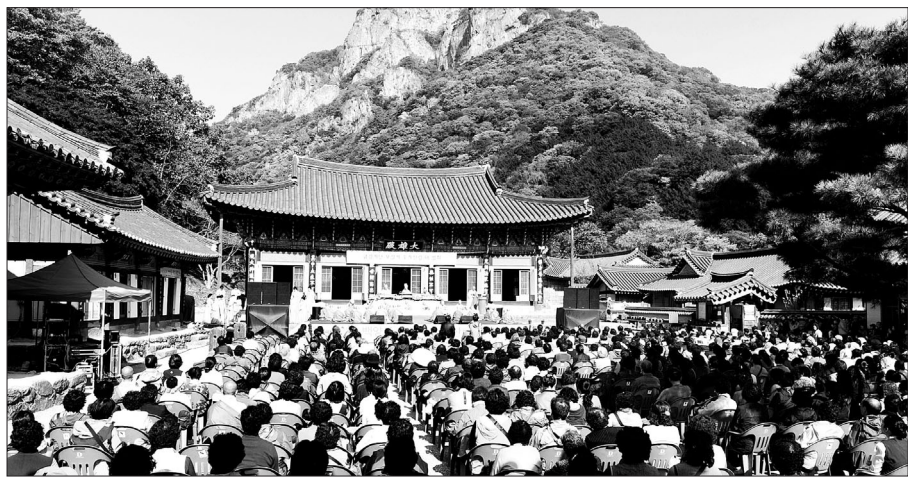
단풍축제가 한창 열리는 백양사 쌍계루 일원에는 전통사찰음식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미각을 깨우는 맛, 담백(淡泊)'이라는 주제의 사찰음식 전시회 또한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사찰음식 전문가인 천진암 주지 정안 스

1000여 명 수계법회 동참 축제 기간 20만명 방문 집계 사찰음식 시연 코너 등 큰 인기

님의 음식 조리 시연은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오래전 사찰 부엌을 모형을 그대로 재현한 세트장과 사찰음식 안내 도우미가 나서기도 했다. 백양사 측은 행사장 주변으로 백양사의 사찰음식을 판매하는 부스가 마련해 시민들이 직접 시식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행사의 2일째에는 최근 음반준비를 하고 있는 백양사 포교국장 수안 스님과 인디언 수니, 파워영의 통기타 음악과 박수현, 정



11월 1~3일 보살계수계법회를 겸한 백양사 단풍축제에는 20만명이 찾았다. 사진은 11월 1일 열린 보살계수계법회 모습.

혜정의 시낭송이 펼쳐져 가을단풍을 즐기는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행사의 마지막 11월 3일에는 열정과 흥겨움의 무대가 펼쳐졌다. 개그맨 김상호의 사회로 가수 박상철, 윤태규, 퓨전국악 아이리아, 벨레보체슬리스트양상봉 등이 출연해 흥겨움과 가을 낭만을 보여주었다.

주지 진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백양사가 시민들의 좋은 휴식처이자, 문화공간으로 자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백양사 단풍축제가 열린 3일간 20만 명의 구름인파가 몰렸다고 밝혔다. 특히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는 관광객들이 북새통을 이뤘. 축제기간 7000만 원의 달하는 매출을 올려 주변 음식·숙박업소도 모처럼 호황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됐다. 백양사 단풍은 11월 중순까지는 절정에 이른 애기단풍을 볼 수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산 종교인 모여 평화합창제 열다



10월 31일 열린 종교평화제 마지막 공연에서 4대 종교 연합 합창단이 노래를 선보이고 있다.

군산지역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의 4대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비와 사랑을 바탕으로 평화를 노래한 자리가 마련됐다.

군산시 종교인 연합회는 10월 31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4대 종단 합창단이 참가한 가운데 '군산시 종교평화합창제'를 개최했다.

음악을 통해 상생과 화합을 모색해자는 취지로 기획된 종교인 평화합창제는 동국사 종경스님, 원불교 최세종 교무, 천주교 박종택 신부, 새길교회 정민 목사 등 군산지역의 종교지도자들과 신도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동국사와 흥천사의 연합합창단인 그린비합창단(지휘 오종숙)이 '경사로다', '공심공체 둘 아닌 노래' 등으로 서막을 열었으며, 개신교 새길합창단(지휘 박호영)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등을 노래했으며, 이어 원불교 원음합창단(지휘 정성웅)이 '기도', '호심'이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창제를 주관한 천주교 평화합창단(지휘 오봉천)이 '묵상', '주님의 사랑' 등으로 무대를 장식한 후, 모든 출연자와 관객들이 함께 '잊혀진 계절'을 부르며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지난 2011년 군산지역 4대 종단 지도자들은 '군산시 종교인 연합회'를 구성해 각 종교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각 종교 간 화합과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취지로 평화합창제를 마련해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해마다 종단 별로 합창제를 순차적으로 주관하기로 하고 원불교, 불교에 이어 올해 천주교가 세 번째로 주관했으며, 내년에는 기독교가 주관하게 된다. 종경스님은 "각 종교 간 화합과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합창제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중심사에서 오백나한대제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재인 중심사 오백나한전에서 열린 나한대제에는 300여 불자들이 함께 기도했다.

광주 무등산 중심사(주지 연광)는 11월 5일 광주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제로 평가 받는 오백나한전(광주시 유형문화재 13호)에서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오백나한대제'가 봉행됐다.

이날 대제가 열린 오백나한전은 1443년 김방에 의해 세워졌으나 정유재란 때 소실된 것을 1609년에 다시 지는 전각으로,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에 속한다. 특히 한국전쟁 때 사찰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되었으나 오백나한전만 화마의 피해를 입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돼 왔다.

오백나한전에는 석가모니불과 아난, 가섭존자, 10대 제자, 16성중, 500이라한이

모셔져있다. 행사는 중심사 자향회의 육법공양 의식에 이어 전통불교영산회 호산 스님과 회원 스님들의 영산재 기도와 법요식이 진행됐다.

행사에서 대중들은 대제가 진행되는 동안 기도를 올리기도 했다. 중심사 주지 연광 스님은 법문에서 "나한(羅漢)이란 수행자의 최고의 경지이자, 큰 스승으로 나한기도는 이런 나한의 깊은 뜻을 알아 실천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며 "불자 각자가 끊임없는 정진으로 나한과 같은 길을 걷자"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 선운사, 밤샘 독서프로그램 진행



밤을 새워 이어진 행사에서는 흥덕중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북콘서트 등을 진행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11월 1~2일 고창 흥덕중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 등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선운사에서 밤샘 독서 프로그램 '선운사 책으로 몰들다'가 개최됐다.

1년 중 가장 단풍이 아름답게 물드는 선운사를 책으로 몰들이겠다는 의미를 담은 '선운사 책으로 몰들다' 프로그램은 단체 독서와 강연, 그리고 북 콘서트와 자유 독서로 이어졌다.

강연에는 고창 출신으로 한국문단의 젊은 시인을 대표하는 김근 시인이 나섰고, 북 콘서트는 통기타 그룹 이하이안이 맡았다.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의 즉석 시낭송

까지 이어져 산사에서 맞는 가을밤의 정취를 더했다.

밤샘독서 참가자들에게는 김근 시인의 시집이 선물로 주어졌고 밤을 꼬박새우며 책을 읽은 학생들에게는 문화상품권이 주어졌다.

선운사 밤샘 독서는 흥덕중학교가 학교 특색사업으로 진행중인 '흥채망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육과정에 독서를 최우선에 두고 책임기를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학교 내에 독서우체국, 빈 공간마다 미니도서관인 썬지문고를 개설하고 독서 마일리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무주 안국사, 무주절경 담은 사진작품 전시

전북 무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사진 전시회가 열렸다. 무주사진가협회(회장 이윤승)는 10월 21~27일까지 산상 전시회를 안국사에서 개최했다.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길이 머무는 산 속의 사진전시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사진 전시회는 무주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의 작품 30여 점이 전시됐다.

지난 1년동안 국립공원 덕유산과 적상산, 무주 구천동등 아름다운 절경을 소재

로 적상산의 아름다운 단풍과 적상호의 일출, 적상산에서 본 능선, 장군봉, 안렴대 등을 담았다.

이번 전시회가 열리는 적상산 안국사는 사면이 증암절벽으로 둘러싸여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면 마치 여인들의 치마와 같다고 하여 적상(赤裳)이라 이름 붙여졌으며, 천일 · 송대폭포, 장도 · 장군바위, 안렴대 등의 자연명소와 적상산성, 안국사 등 유서깊은 문화 유적이 자리 잡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강진 음천사 청소년 가정에 장학금 전달

강진 음천사(주지 정암)는 10월 30일 전남 강진군청에서 지역 청소년 가정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강진원 강진군수, 정암 스님, 김용호 강진군새마을회 회장 등 강진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전달식에서 정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농촌지역이라 젊은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아직도 조손가정의 학생들과 청소년 가정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



강진음천사(주지 정암)는 10월 30일 전남 강진군청에서 지역 청소년 가정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은 사회복지과를 통해 어려운 청소년가정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음천사 향후 매년 정기적으로 장학금과 생필품들을 청소년 가정들에게 전달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탄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깨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

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 하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안바둑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 1 염주세트키트: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삼색, 코핀1개, 펜던트, 이부사계
-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혔을 염주는 준비물 중 이부사계로 해결합니다
-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 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
- 4 수직으로 나열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
-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한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 염주 통과시킵니다.
- 7 마감용 염주를 통과 시킨 후 줄에 펜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 8 이때 펜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 9 두 줄로 2회 앞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 10 다시 매듭을 3회 한껏 조이면 됩니다.
-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더로 살짝 지지서 손으로 가볍게 늘려줍니다.
- 12 108염주 완성. 상용인쇄허출원 20-2011-00036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

다담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